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4

M a y

중현의 만나

고 등 부

하나님의 흘으심과 부르심

1과 · 자성소를 향하여(살 길) 히브리서 10:19~20

2과 · 세상에 첫 용사(초안) 창세기 10:6~12

3과 · 사남 평지에서(교만의 탑) 창세기 11:1~4

4과 · 온 지면에 흘으셨더라(흠여짐) 창세기 11:5~9

2014. 5 고등부

하나님의 흠으심과 부르심

교재
구성

5월 4일 1과

지성소를 향하여(살 길)

히브리서 10:19~20

새로운 산 길을 열어 놓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5월 11일 2과

세상에 첫 용사(초인)

창세기 10:6~12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5월 18일 3과

시날 평지에서(교만의 탑)

창세기 11:1~4

교만으로 얼룩진 혼돈의 인류

5월 25일 4과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흠여짐)

창세기 11:5~9

다시 하나로 부르시기 위하여

홍수 후에 인류는 이전의 죄악 된 세상을 다시 회복이라도 하듯 강력한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탑과 건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초인(超人, Superman)을 지향하며 권력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과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날 땅의 죄악의 모임을 그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흠으시고, 온 인류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림을 계속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가득함과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친히 인간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죄를 그치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흠으신 그들을 다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 주십니다.

1 과

지성소를 향하여

POINT

새로운 산 길을 열어 놓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¹⁶⁶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와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¹⁷²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19~20

2014.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4 주일

5 월요일

☐ 참언 15장

6 화요일

☐ 참언 16장

7 수요일

☐ 참언 17장

8 목요일

☐ 참언 18장

9 금요일

☐ 참언 19장

10 토요일

☐ 참언 20장

장년용 <충현의 만나> 매일성경묵상을 활용하세요.

새로운 산 길(Living way)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한 스펙 쌓기와 자격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믿습니까?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준비와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Tip 산 길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19)

새로운 산 길을 열어 놓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과거의 죄나 신분의 조건 등이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찬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에베소서 2:11~13).

히브리서 10장은 '지성소'를 설명하며 우리에게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지성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던 장소인데, 이곳은 오직 선택받은 대제사장만 일 년에 한 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받기 위해 들어가던 곳이었습니다. 비록 대제사장이라도 두려움으로 이곳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넘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성찬을 대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물로 받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지성소는 여러 겹의 두꺼운 가죽 휘장으로 둘러 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의 장애물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새로운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과 화목하십시오. 유일한 생명의 길을 그분이 열어 놓으셨습니다.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속죄(Redemption)란 무엇입니까?(에베소서 1:7 참조)

◆ 지성소(The Most Holy Place)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 1과의 Point를 써 보세요.

◆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에베소서 2:13

로마서 3:26

히브리서 9:15

◆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이웃들과 화목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의 비밀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는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석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정과 친구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10)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Free Note



2 과

세상에 첫 용사

POINT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 ☞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 ☞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싹다와 라야마와
삼드가요 라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 ☞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 ☞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 ☞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 ☞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달과 갈라와
- ☞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창세기 10:6~12

2014.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1 주일

12 월요일

☐ 참언 21장

13 화요일

☐ 참언 22장

14 수요일

☐ 참언 23장

15 목요일

☐ 참언 24장

16 금요일

☐ 참언 25장

17 토요일

☐ 참언 26장

장년용 <출현의 만나> 매일성경묵상을 활용하세요.

자기 자랑 vs 하나님 자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으로 나의 삶의 좌우명을 만든 뒤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Tip 용사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 기리로다”(요한계시록 17:14)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 범직한 인류를 모두 물로 쓸어 버리셨지만, 노아를 통해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주시고 수많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니므롯'(대적자, 반역자)이란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니므롯은 함의 손자로 힘이 세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세상에서 첫 용사라고 말합니다(8절).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폭력과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여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9절에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위대하고 강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불리었는데, 이는 니므롯이 '잔혹한 전쟁광'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사람을 가리켜 비유로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교만히 권세를 부리며 폭력을 좋아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그가 바벨탑을 쌓도록 선동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 탑을 의지하고, 사람이 나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이전의 사람들의 죄악을 다시 부활이라도 시키듯 악에 악을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니므롯과 같은 사람을 따르며, 이 땅에 탑을 쌓고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며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강력한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니므롯과 같이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스스로 강해지라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홍수 이후 사람들이 시날 땅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그들이 모여서 행했던 일들과 그들의 행위가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비교해 보세요.

◆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요한일서 2:15

고린도전서 10:31

발립보서 1:20~21

◆ 오늘날 '니므롯' 과 같은 사람은 어떤 이들일까요?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의 철학자들은 종교를 나약한 사람들의 ‘신적인 의존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인간이 위대한 존재이며, 인간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약, 나의 친구(가족)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 분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Free Note



3 과

시날 평지에서

POINT

교만으로 얼룩진 혼돈의 인류

^㉑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㉒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㉓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㉔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1~4

2014.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8 주일

19 월요일

☐ 마태복음 23장

20 화요일

☐ 마태복음 24장

21 수요일

☐ 마태복음 25장

22 목요일

☐ 마태복음 26장

23 금요일

☐ 마태복음 27장

24 토요일

☐ 마태복음 28장

장년용 <충현의 만나> 매일성경묵상을 활용하세요.

교만 vs 겸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만과 겸손의 의미를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Tip 교만의 탐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기 41:34)

교만으로 얼룩진 혼돈의 인류

전 세계에는 6000여 가지의 언어가 있으며 성경은 426개의 언어로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인류의 언어가 나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로 사람들은 멸망당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전해 들었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단일 언어를 사용하였던 사람들은 니므롯을 중심으로 시날이라는 평지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흠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인간들은 이 명령을 거부하고 흠어짐을 모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탑은 하나님의 계획에 항거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성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고 하나님 없이도 위대한 문명을 이루고 살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완벽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는 이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흠어지지 않고 연합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4절). 이것은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는 것입니다(창세기 1:28; 9:1, 7). 뭉쳐서 사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죄를 가득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바벨이란 '혼돈'이라는 뜻으로 시끄럽고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이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인간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끝없이 대적하고 반항하는 삶을 살아가며 영적인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심판대 앞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을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무엇입니까?(창세기 10:4)

◆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작정하셨습니까?(창세기 10:5~8)

◆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벨탑은 어떤 것입니까?

◆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빌립보서 2:5

시편 14:1

미가 6:8

◆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으려 하는 것일까요?

교만 VS 겸손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인간의 의지의 표현이 교만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니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빌립보서 2:5~8)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즐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하고 싶어 합니다」

교만으로 얼룩진 혼돈의 인류



Free Note



4 과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POINT

다시 하나로 부르시기 위하여

-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창세기 11:5~9

2014.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5 주일

26 월요일

☐ 마가복음 1장

27 화요일

☐ 마가복음 2장

28 수요일

☐ 마가복음 3장

29 목요일

☐ 마가복음 4장

30 금요일

☐ 마가복음 5장

31 토요일

☐ 마가복음 6장

장년용 <충현의 만나> 매일성경묵상을 활용하세요.

홀으심

잘 자란 바나나 나무의 순을 꺾어 그 옆에 꽂아 놓기만 해도 그 순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잘 자란 바나나 나무는 그 열매와 순들로 주변을 온통 바나나로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바나나 나무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세요.

Tip 홀어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1)

다시 하나로 부르시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읍과 탑을 의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강림하셔서 인간의 계획에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시날 평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인 인간들의 건축 현장에 그들을 흠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 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을 멈추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멸절시키는 방법 대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탑을 쌓던 사람들은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 결국 서로 흠어졌고, 이로 인해 죄악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흠으신 이유는 모든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는 창조명령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마태복음 28:19~20 사도행전 1:8).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땅 끝까지 흠으시고, 흠어진 그들을 다시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바벨탑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교만의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 세상에는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앉히려는 죄악들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우리끼리의 소통은 죄를 더욱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흠으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하나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죄악을 어떻게 멈추게 하십니까?(창세기 11:7~9)

◆ 창세기 11:7의 “자,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는 바벨(혼돈)에서 사람들을 흠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11을 통해 다시 이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에베소서 1:10)

◆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마태복음 28:18~20

히브리서 9:15

에베소서 1:10

◆ 끊임없이 범죄하는 연약한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로마서 5:8)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흐으심과 부르심

교회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친구(가족)의 이름을 써 보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다시 하나로 부르시기 위하여



Free Note







Free Note





Free Not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과 반 이름:

충현의 만나 2014년 5월

Copyright© 2014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송 광 · 그림 김아름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품]